

에드거 앨런 포

더 레이븐



 Bilinguator

에드거 앨런 포
더 레이븐

Edgar Allan Poe
The Raven

더 레이븐

언젠가 쓸쓸한 한밤중, 피로와 슬픔에 젖어
생각에 잠겼을 때,
잊혀진 전설을 담은 기묘하고 신비로운 책
을 읽으며
선잠이 들어 머리를 꾸벅일 때 갑자기 두드
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살며시 두드리는 듯,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문객이로군.” 나는 중얼거렸다. “내 방문
을 두드리는 것은 —
그저 방문객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아, 또렷하게 기억나네 그건 음산한 12월의
일,
사그러드는 불씨가 바닥에 유령 같은 그림
자를 드리울 때였다.
나는 내일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고 — 빌리
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나의 책에서 슬픔의 마지막 장을 — 죽은 레
노어에 대한 슬픔을 —
천사들이 레노어라 이름 붙인 고귀하게 빛
나던 여인을 —
지금은 여기 영원히 이름 없이 누워있네.

그리고 보랏빛 휘장마다 흐릿한 슬픔이 스
치는 소리는
나를 떨게 했다 — 느껴본 적 없는 기이한
공포가 내 마음을 채웠고
그래서 이제, 뛰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일어
나 다시금 말했다.
“들어오기를 청하는 방문객이 문밖에 있을
뿐 —
어느 늦은 방문객이 문 밖에서 들어오기를
청할 뿐 —
단지 그것뿐, 아무것도 아니야.”

Once upon a midnight dreary, while I pondered,
weak and weary,
Over many a quaint and curious volume of
forgotten lore—
While I nodded, nearly napping, suddenly there
came a tapping,
As of some one gently rapping, rapping at my
chamber door.
“ ’Tis some visitor,” I muttered, “tapping at my
chamber door—
Only this and nothing more.”

Ah, distinctly I remember it was in the bleak
December,
And each separate dying ember wrought its ghost
upon the floor.
Eagerly I wished the morrow;—vainly I had sought
to borrow
From my books surcease of sorrow—sorrow for the
lost Lenore—
For the rare and radiant maiden whom the angels
name Lenore—
Nameless here for evermore.

And the silken sad uncertain rustling of each purple
curtain
Thrilled me—filled me with fantastic terrors never
felt before;
So that now, to still the beating of my heart, I stood
repeating
“ ’Tis some visitor entreating entrance at my
chamber door—
Some late visitor entreating entrance at my
chamber door;
This it is and nothing more.”

The Raven

이제 내 영혼은 더 단단해졌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선생님, 혹은 부인, 저의 실례를 용서하소서.
 사실 나는 깜박 잠들었는데, 당신이 너무나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셔서,
 당신이 너무나 희미하게, 내 방문을 두드리셔서,
 그래서 소리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 여기서 나는 문을 활짝 열었다. — 그곳에는 어둠뿐, 아무것도 없었다.

어둠속을 깊이 응시하며, 나는 오래도록 서 있었다. 호기심에, 두려움에, 의심스러움에, 전에는 감히 꿈꾸지 못한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을 꿈꾸면서,
 그러나 침묵은 깨지지 않았고, 어둠은 아무런 징조도 없는데,
 들려오는 것은 오직 한마디, 속삭였던 이 말 뿐, “레노어!”
 메아리 되어 돌아온 한마디, 속삭였던 이 말 뿐, “레노어!”
 단지 이것 뿐, 아무것도 없었다.

방으로 되돌아오자, 내 안의 모든 영혼이 불타올랐고,
 곧 나는 다시, 이전보다 더 크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나는 말했다. “분명히 내 방 창가에 무언가가 있구나.
 그럼 살펴볼까. 거기 무엇이 있는지, 이 수수께끼를 풀어 보자 —
 내 마음 잠시 진정시키고, 이 수수께끼를 풀어 보자 —
 단지 바람일 뿐, 아무것도 아니야!”

Presently my soul grew stronger; hesitating then no longer,
 “Sir,” said I, “or Madam, truly your forgiveness I implore;
 But the fact is I was napping, and so gently you came rapping,
 And so faintly you came tapping, tapping at my chamber door,
 That I scarce was sure I heard you” — here I opened wide the door; —
 Darkness there and nothing more.

Deep into that darkness peering, long I stood there wondering, fearing,
 Doubting, dreaming dreams no mortals ever dared to dream before;
 But the silence was unbroken, and the stillness gave no token,
 And the only word there spoken was the whispered word, “Lenore!”
 This I whispered, and an echo murmured back the word, “Lenore!” —
 Merely this and nothing more.

Back into the chamber turning, all my soul within me burning,
 Soon again I heard a tapping something louder than before.
 “Surely,” said I, “surely that is something at my window lattice;
 Let me see, then, what thereat is, and this mystery explore —
 Let my heart be still a moment, and this mystery explore; —
 ‘Tis the wind and nothing more.”

더 레이븐

내가 갑자기 창문을 열어젖히자, 요란스레
퍼덕거리며,
들어온 건 아득한 옛날 옛적의 위엄 있는 까
마귀.
그것은 인사도 없이, 잠시도 멈추거나 주저
하지 않고,
공작 혹은 귀부인의 태도로 내 방문 위에 자
리 잡았다 —
내 방문 위 팔라스(아테나 여신)의 흉상 위
에 자리 잡았다 —
자리 잡고, 앉아 있을 뿐, 다만 그뿐이었다.

그러자 흑단처럼 까만 새는 신중하고 엄숙
한 표정으로
내 슬픔을 숙여 나를 미소 짓게 만들었다.
“그대의 머리 깃은 깎이고 잘렸지만,” 내가
말했다. “그대는 분명 겁쟁이가 아니야.
밤의 경계에서 방황하는 무섭도록 냉혹한
태곳적 까마귀여 —
그곳 밤의 경계에서 불리는 그대의 고매한
이름을 말해다오!”
까마귀가 말했다. “절대 그렇지 않으리.”

이 불품없는 새가 이토록 분명히 말하는 것
을 듣고 나는 크게 놀랐다.
비록 그 대답이 별 의미 없고 — 아무 관련
없었음에도.
지금까지 살아생전에 방문 위에 자리 잡은
새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없다는 것에는 다들 동
의할 것이다 —
새든 짐승이든, 방문 위 흉상에 자리 잡은,
“절대 그렇지 않으리.” 같은 이름을 지닌.

Open here I flung the shutter, when, with many a
flirt and flutter,
In there stepped a stately Raven of the saintly days
of yore.
Not the least obeisance made he; not a minute
stopped or stayed he,
But, with mien of lord or lady, perched above my
chamber door—
Perched upon a bust of Pallas just above my
chamber door—
Perched, and sat, and nothing more.

Then this ebony bird beguiling my sad fancy into
smiling,
By the grave and stern decorum of the
countenance it wore,
“Though thy crest be shorn and shaven, thou,” I
said, “art sure no craven,
Ghastly grim and ancient Raven wandering from
the Nightly shore—
Tell me what thy lordly name is on the Night’s
Plutonian shore!”
Quoth the Raven, “Nevermore.”

Much I marvelled this ungainly fowl to hear
discourse so plainly,
Though its answer little meaning—little relevancy
bore;
For we cannot help agreeing that no living human
being
Ever yet was blessed with seeing bird above his
chamber door—
Bird or beast upon the sculptured bust above his
chamber door,
With such name as “Nevermore.”

The Raven

그러나 까마귀는 조용한 흉상 위에 외로이
자리 잡고, 오직
그 한 마디를 했을 뿐, 마치 그 한 마디에 온
영혼을 쏟아부은 듯,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 깃털 하나 떨럭이
지 않았다 —
내가 간신히 중얼거렸을 때까지. “다른 친
구들은 예전에 떠나가 버렸지 —
내일이면 저 새도 나를 떠나겠지. 내 희망이
예전에 떠나가 버렸듯이.”
그러자 그 새가 말했다. “절대 그렇지 않으
리.”

때맞춰 나온 대답으로 정적이 깨진 것에 놀
라서
“틀림없이,” 나는 말했다. “이 새가 말하는
것은 그저 주워듣고 배운 것일 뿐,
어떤 불행한 주인에게서 배운 것일 뿐. 잔인
한 재앙에 쫓기고 쫓겨.”
그의 노래는 마침내 무거운 짐으로 남았다
—
그의 희망은 애도가(哀悼歌)에도 마침내 우
울한 짐으로 남았다 —
“절대 — 절대 그렇지 않으리!” 라는.

그러나 그 까마귀는 여전히 내 슬픈 영혼을
미소 짓게 만들었고,
나는 곧장 쿠션 있는 의자를 새와 흉상이 있
는 방문 앞에 굴러다 놓고,
벨벳 천에 기대 앉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해 본다.
옛날 옛적 불길한 새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
하면서 —
이 냉혹하고, 불품없고, 섬뜩하고, 수척한,
옛날 옛적 불길한 새가
“절대 그렇지 않으리”하고 울어대는 의미
를.

But the Raven, sitting lonely on that placid bust,
spoke only
That one word, as if his soul in that one word he did
outpour.
Nothing further then he uttered; not a feather then
he fluttered—
Till I scarcely more than muttered: “Other friends
have flown before—
On the morrow he will leave me, as my Hopes have
flown before.”
Then the bird said, “Nevermore.”

Startled at the stillness broken by reply so aptly
spoken,
“Doubtless,” said I, “what it utters is its only stock
and store,
Caught from some unhappy master whom
unmerciful Disaster
Followed fast and followed faster till his songs one
burden bore—
Till the dirges of his Hope that melancholy burden
bore
Of ‘Never—nevermore.’”

But the Raven still beguiling all my sad soul into
smiling,
Straight I wheeled a cushioned seat in front of bird
and bust and door;
Then, upon the velvet sinking, I betook myself to
linking
Fancy unto fancy, thinking what this ominous bird
of yore—
What this grim, ungainly, ghastly, gaunt, and
ominous bird of yore
Meant in croaking “Nevermore.”

더 레이븐

이런 생각에 빠져 앉아있었지만, 심장까지
태워버릴 듯
타오르는 눈동자를 향해 한 마디도 건네지
않고,
이렇게 계속 점을 치며 앉아 있었다. 불빛이
흘러내리는
쿠션의 벨벳 무늬 위에 머리를 편히 기대고
서.
그러나 불빛이 흘러내리는 쿠션의 보랏빛
벨벳 무늬 위,
그녀가 기댈 일, 절대로 없으리라!

그러자, 내 생각에, 공기가 더욱 짙어지면
서, 향기가 가득 해졌다.
천사들이 양탄자 바닥에 희미한 발자국을
남기며 흔들고 다닌 향로에서 나온듯한.
“가연은 것,” 내가 외쳤다. “신께서 네게 빌
려 주셨구나 — 이 천사들에게 전해주신 거
야.
진통제를 — 레노어의 기억을 잊을 진통제
와 망각의 약을 보내주셨구나!
마시리라. 이 고마운 약을 마시고 죽은 레노
어를 잊으리라!”
까마귀가 말하였다, “절대 그렇지 않으리.”

“예언자여!” 내가 말했다. “악귀여! — 새든
악마든 여전히 예언자인 —
신이 그대를 보냈든, 폭풍이 그대를 이곳 경
계까지 날려 보냈든,
마법에 걸린 이 황량한 땅 — 공포에 사로잡
힌 이 집까지
두려움 없이 날아든 그대여 — 이렇게 청하
노니, 진심으로 말해 다오 —
그곳에는 — 길르앗에는 치유의 향이 있는
가? — 말해 다오 — 이렇게 청하노니, 말해
다오!”
까마귀가 말했다, “절대 그렇지 않으리.”

This I sat engaged in guessing, but no syllable
expressing
To the fowl whose fiery eyes now burned into my
bosom's core;
This and more I sat divining, with my head at ease
reclining
On the cushion's velvet lining that the lamp-light
gloated o'er,
But whose velvet violet lining with the lamp-light
gloating o'er
She shall press, ah, nevermore!

Then, methought, the air grew denser, perfumed
from an unseen censer
Swung by Seraphim whose foot-falls tinkled on the
tufted floor.
“Wretch,” I cried, “thy God hath lent thee—by
these angels he hath sent thee
Respite—respite and nepenthe from thy memories
of Lenore!
Quaff, oh quaff this kind nepenthe and forget this
lost Lenore!”
Quoth the Raven, “Nevermore.”

“Prophet!” said I, “thing of evil!—prophet still, if
bird or devil!—
Whether Tempter sent, or whether tempest tossed
thee here ashore,
Desolate, yet all undaunted, on this desert land
enchanted—
On this home by Horror haunted—tell me truly, I
implore—
Is there—is there balm in Gilead?—tell me—tell
me, I implore!”
Quoth the Raven, “Nevermore.”

The Raven

“예언자여!” 내가 말했다. “악귀여! — 새든 악마든 여전히 예언자인 — 우리를 굽어 살피는 저 하늘에 맹세하건대 — 우리 둘 모두가 섬기는 신께 맹세하건대 — 슬픔에 가득 찬 이 영혼에게 말해 다오. 저 머나먼 에덴 동산에서 천사들이 레노어라 이름 붙인, 성스러운 여인을 꺼안을 수 있을지— 천사들이 레노어라 이름 붙인, 고귀하게 빛나던 여인을 꺼안을 수 있을지.” 까마귀가 말하였다, “절대 그렇지 않으리.”

“그 말은 작별 인사로 삼자, 그대가 새든 악마든!” 나는 벌떡 일어나며 절규했다 — “폭풍 속으로, 밤의 경계로 그대 돌아가라! 그대 영혼이 말한 거짓의 징표, 검은 깃털 하나도 남기지 말라! 내 고독을 깨뜨리지 말고, 내 방문 위 흉상을 떠나라! 내 심장을 찌른 그대 부리를, 내 방문에 앉은 그대 모습을 치워라!” 까마귀가 말하였다, “절대 그렇지 않으리.”

그리해도 그 까마귀는 날아가지 않고 여전히, 아직도 앉아 있다. 내 방문 바로 위에, 팔라스(아테나 여신)의 창백한 흉상 위에. 그 눈은 꿈꾸고 있는 악마의 모습과 꼭 같고, 그 위의 불빛은 그를 비추어 바닥에 그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리고 내 영혼은 바닥에 떠도는 그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 절대로 없으리!

“Prophet!” said I, “thing of evil!—prophet still, if bird or devil!
By that Heaven that bends above us—by that God we both adore—
Tell this soul with sorrow laden if, within the distant Aidenn,
It shall clasp a sainted maiden whom the angels name Lenore—
Clasp a rare and radiant maiden whom the angels name Lenore.”
Quoth the Raven, “Nevermore.”

“Be that word our sign of parting, bird or fiend!” I shrieked, upstarting—
“Get thee back into the tempest and the Night’s Plutonian shore!
Leave no black plume as a token of that lie thy soul hath spoken!
Leave my loneliness unbroken!—quit the bust above my door!
Take thy beak from out my heart, and take thy form from off my door!”
Quoth the Raven, “Nevermore.”

And the Raven, never flitting, still is sitting, still is sitting
On the pallid bust of Pallas just above my chamber door;
And his eyes have all the seeming of a demon’s that is dreaming,
And the lamp-light o’er him streaming throws his shadow on the floor;
And my soul from out that shadow that lies floating on the floor
Shall be lifted—nevermore!



Больш книг-білінгв на bilinguator.com
More bilingual books on bilinguator.com
Więcej dwujęzycznych książek na bilinguator.com
Больше книг-билингв на bilinguator.com
Більше книг-білінгв на bilinguator.com

2024